

學校 文法の 主動과 使動 記述 内容 檢討*

金榮一

(崇實大 博士)

要約 및 抄錄

김영일, 2020, 학교 문법의 주동과 사동 기술 내용 검토, 어문연구, 186 : 295~323 이 논문에서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요소로 다루어지는 주동과 사동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과서에 있는 주동과 사동의 정의가 제시문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동을 정의할 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동을 정의할 때도 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피사동주가 조건이나 상태 변화를 겪는 것을 포함하도록 확장이 필요하다. 주동 대신에 기존의 능동을 사용하여 사동에 대응되는 표현으로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능동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용사문, 비행위성 자동사문을 능동문으로 명명할 수 있고 새로운 행위주인 사동주가 도입되면 사동문으로 확장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사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수정된 주동을 사용하거나 능동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核心語: 主動, 使動, 主動文, 使動文, 主動詞, 使動詞, 使動主, 非使動, 學校 文法

I. 緒論

본 연구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요소로 다루어지는 主動 表現(이하 주동)과 使動 表現(이하 사동)의 기

* 이 논문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25회 전국 학술대회(2020년 5월 16일, 온라인)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줄고의 토론을 맡아 미진한 부분을 꼼꼼하게 제언해 주신 영남대학교 주지연 선생님,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술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을 짝지어 文章轉換의 측면에서 기술해 왔으며,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이 제가끔 對應關係를 이루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용어의 정의, 문장의 실현 방법, 문장의 종류, 표현 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主動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예문으로 狀態를 나타내는 형용사문 “길이 넓다.”를 제시하고 使動을 ‘주어가 남에게 동작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예문으로 主語가 동작을 直接 하는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를 제시하는 등 교과서 내의 설명과 예문이 整合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해와 혼란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단적인 예로 포털 사이트 지식iN,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등에는 이들 定義에 대한 질문부터 능동과 주동이 같은지 다른지, 같다면 왜 둘을 다른 用語로 사용하는지, 능동과 주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문장이 사동문인지 아닌지, 주동과 사동이 무엇인지, 주동과 사동을 어떻게 區分하는지 등 같거나 비슷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여기에서 學習者が 오해하거나 혼란을 느끼는 원인이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도 無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주동과 사동을 考察한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주동과 사동의 정의와 교과서의 제시문을 結付하여 문제를 探索한 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精密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¹⁾ 또한 주동과 능동이 거의 구분되지 않기에 論議 과정에서 능동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記述 내용을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고 이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을 제안할 것이다.

주동과 사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의 『국어⑤』, 고등학교 과정의 『독서와 문법 I』에서 다루어졌고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된 『독서와 문법』에서 다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숙영(2016: 378 주3)에서는 “문법 교과서에서 잘못 기술되었거나 소략하게 기술된 부분 등은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수정되어야 할 점들이 특정 교과서나 특정 집필진의 문제로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다.

는 고등학교 과목 編制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新設된 『언어와 매체』로 이동하였다. 『언어와 매체』는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이수하는 選擇 과목으로, 이 중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에서 文法 파트가 分離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科目名에 있는 ‘언어’는 사실상 ‘문법’을 의미한다.²⁾ 이 점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과 학습 내용 구성, 성취기준 변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언어와 매체』의 檢認定 교과서는 모두 다섯 종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³⁾

- ㄱ. 『언어와 매체』(이삼형 외, 지학사, 2018)
- ㄴ. 『언어와 매체』(방민호 외, 미래엔, 2018)
- ㄷ. 『언어와 매체』(최형용 외, 창비, 2018)
- ㄹ. 『언어와 매체』(민현식 외, 천재교육, 2018)
- ㅁ. 『언어와 매체』(이관규 외, 비상교육, 2018)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주동과 사동의 이론적인 내용을

-
- 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김창원 외 2015)에 따르면 『언어와 매체』는 공통 교육과정 『국어』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 『국어』의 ‘문법’ 영역과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과목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던 『매체 언어』를 『문법』과 통합하여 『언어와 매체』로 편제하였다. 이는 언어와 국어, 매체에 대한 통합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일상의 언어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탐구, 비판적 수용, 창의적 활용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목 해설에서는 초·중·고 공통 『국어』의 문법 영역과 매체 관련 내용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 음성 언어·문자 언어·매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이를 실제 의사소통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3) 교육과정 개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면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기존의 ‘제X차’라는 표현 대신에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연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장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줄여서 ‘개정’이라 칭하기로 한다.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주동과 사동의 기술 내용과 쟁점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3.1.에서는 주동과 사동에 능동을 포함하여 비교함으로써 주동과 사동의 쟁점을 기술하고 3.2.와 3.3.에서는 주동과 사동 각각의 정의와 함께 교과서의 제시문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언급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3.4.에서는 주동, 사동, 능동의 대응 관계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II. 理論的 論議

한국어 문법을 기술할 때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이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체계로 논의되었고, 주동을 제외한 각각이 能動態, 被動態, 使動態로 명명되었다. ‘態(voice)’는 논항 명사구의 意味 役割(semantic role)과 文法 關係(grammatical relation)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화자가 어떤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기술하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을 態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능동사, 피동사, 사동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文章이어야 한다. 동사가 실현하는 사건이 사건 참여자 論項을 갖추어 문장이라는 完整的 形式으로 나타나야 사건 참여자들 사이의 문법 관계 변화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ybee(1985: 62-63)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태의 차이는 문장의 주어가 동사에 대해 가지는 문법 관계를 변화시키므로, 태는 동사 및 동사의 논항과 모두 관련되며 명사구의 役割을 바꾸고 동사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보는 觀點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국어학 개론서나 학교 문법 개론서 등에서 주동과 관련하여 주동사, 주동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주동태로 명명된 적은 없는 듯하다. 이는 주동문과 사동문에 의미 차이가 있어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태’라고 判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능동, 피동, 사동은 그것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蓄積되었지만, 주동은 항상 사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만 설명될 뿐, 해당 범주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법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쉽게 말해, 능동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遂行하는 것으

로, 피동은 주어가 다른 이에게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사동은 주어가 다른 이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주동은 능동↔피동, 주동↔사동의 對立的인 문장 轉換의 측면에서 사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능동, 피동, 사동처럼 凡言語的인 일반성을 발견할 수 없고, 이것들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獨立的인 개별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⁴⁾ 그리하여 주동에만 나타나는 문법적인 특성이나 의미·화용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교과서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표지가 없는 일차적인 基本態를 능동이라고 한다면 피동과 사동 모두 이차적인 派生態로서 파생 접미사와 같은 형식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주동은 주동을 실현하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능동태는 ‘active voice’의 譯語이고 피동태는 ‘passive voice’의 역어이며 사동태는 ‘causative voice’의 역어라고 할 때 ‘주동’은 ‘active voice’ 외에 마땅한 對譯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고 다른 언어의 용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주동은 능동과 同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동은 항상 사동을 前提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태로 인정되지 않는다(최호철 2010: 339). 그럼에도 학교 문법의 주동과 사동 단원에서 주동, 주동사, 주동문 등을 줄곧 사용해 온 것은 교수와 학습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주동이라는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체계의 간결성, 교수의 수월성, 이해의 용이성과 같은 教育的 便益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동작이나 행위를 주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분류한다. 즉, 사동문은 어떤 참여자(使動主)가 다른 참여자(被使動主)에게 영향을 미쳐 어떤 행위를 일으킴을 표현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사동문에는 접미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과 ‘-게 하다’로 실현되는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임지룡 외 2005: 286). 학교 문법에서는 피동문의 비교 대상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부르고 사동문의 비교 대상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부른다(구본관 외

4) 이익섭·채완(1999: 305-306)에서도 피동이 능동이라는 확실한 상대 態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사동은 흔히 주동이라 부르는 짝은 있으나 그 주동이 뚜렷한 한 態를 대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2015: 345). 주동은 사동에 대한 상대 개념이며 사동이 문법 범주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使動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권재일 2012: 357).⁵⁾ 이처럼 사동, 사동문은 주동, 주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382).

학교 문법에서는 주동법, 사동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동 표현, 사동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주동과 사동을 文法 範疇로 파악하지 않고 일종의 意味 範疇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으로는 ‘-이/히/리/기/우/구/추’, ‘-시키다’⁶⁾, ‘-게 하다’처럼 사동을 실현하는 표지의 層位가 형태론과 통사론을 넘나드는 등 다양한 층위로 실현되기에 屈折로 실현되는 엄밀한 의미의 문법 범주로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사동을 실현하는 표지에 대한 층위의 多樣性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주동과 사동의 정의를 보면 누가 직접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시키느냐와 같은 意味論인 설명이 나타난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 문법은 학문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동과 사동의 학습 목표는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학습하거나 피동문과 사동문의 규칙이나 원리 등을 학습하는 것보다 이것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使用하는 것에 더 중요한 목적이 놓여 있다. 이는 교육 목표인 ‘차원 높은 의사소통’과 매우 연관하며 ‘수준 높은 한국어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사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어 교육과 인접해 있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른 언어 사동과의 對照 研究, 교재 분석이나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教育 方案을 제시한 연구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국어 교육에서 주동, 사동만을 집중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⁷⁾ 학위논문으로 김소라(2009), 김점숙(2010), 공운

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학 개론’이라는 부제를 단 김광해 외(1999)에서도 ‘사동법’을 사용하였다.

6) 학교 문법에서는 ‘-시키다’를 사동 접미사로 처리하나, 논자에 따라서는 단어로 처리하기도 한다. 학교 문법 개론서에 해당하는 이관규(2002/2016), 임지룡 외(2005/2020)에서도 ‘-시키다’를 사동 접미사가 아닌 단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하면 한국어의 사동은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 어휘적 사동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7) 교육 문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학교 문법(국어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 중,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주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의 특성상 문법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한국어의 주동이 학습자들의 언어에서는 능동, 즉 ‘active voice’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의 외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사동의 대조 연

희(2012), 송택경(2012) 등이 있는데, 지난 교육과정에서 주동과 사동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와 달리 문숙영(2016: 404)에서는 주동과 사동의 기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주동이 개념적으로 능동과 전혀 구별되지 않으므로 주동이 別途의 범주로 존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사동문이 주동문과 의미 차이가 크므로 사동사 파생 전의 기본 용언이 있다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범언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동이라는 이름으로 範疇化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⁸⁾ 그렇다면 주동은 능동과 완전히 동일한가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다. 동일하다면 주동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創出하거나 하나의 문장이 주동이자 능동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능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冒頭에서 언급한 混亂相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동과 사동은 제5차 교육과정(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淵源이 깊다.

Ⅲ. 主動과 使動의 記述 內容과 爭點

1. 主動, 使動, 能動의 比較 檢討

검토 대상으로 삼은 5종의 교과서에서 主動과 使動의 기술 내용을 살펴 보기에 앞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주동과 사동의 정의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2009 개정 『국어⑤』의 주동, 사동을 2015 개정 『언어와 매체』의 주동, 사동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교과서	2009 개정 『국어⑤』		2015 개정 『언어와 매체』	
㉠지학사	주동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주동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8) 이선웅(2012: 351)에서도 주동-사동이 설명의 편의를 위한 이원적 용어 사용이므로 기술 문법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편의성을 위한 학교 문법에 서라면 모르되’라고 하여,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니다.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하도록 시키는 것
㉠미래엔	주동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주동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사동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시키는 것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창비	주동	주어가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	주동	주어의 지시 대상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
	사동	주어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행동하도록 시킨 것	사동	주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천재교육	주동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것	주동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사동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시키는 것
㉣비상교육	주동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직접 하는 것	주동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사동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표 1> 2009 개정과 2015 개정의 주동과 사동 비교

<표 1>을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나 ‘스스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共通點이 있다.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概念的 의미는 변함이 없으므로 주동과 사동의 外延은 전후의 두 교육과정 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2009 개정의 주동과 사동이 2015 개정에서도 개념과 정의가 그대로 維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숙영(2016: 377)에서는 세 번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제 기술의 대상이 된 문법 현상과 기술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문법이 그리 단시간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문법은 規範의 성격으로 인해 특히 保守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009 개정 이후의 암묵적인 집필 지침이 세부 내용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02)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검인정 체제 아래에서도 집필진들이 기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데 融通性을 발휘할 여지가 크게 제한되었던 셈이다(문숙영 2016: 377).⁹⁾

9)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다. 동의하는 바가 있어 옮겨 놓는다. 마지막 국정 교과서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02)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모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크기는 하나 이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 기술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 몇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기도 하였다(예: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위의 표에서 주동과 사동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으나, 능동과 결부하여 살펴보면 相衡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과 ㉡의 주동과 능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주동	능동
㉠지학사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
㉡창비	주어가 스스로 행동한 것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동작을 한 것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동작을 한 것)

<표 2> 2009 개정에서 ㉠과 ㉡의 주동과 능동 비교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 主動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으로, 能動은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에서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자신의 힘(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의 능동이 ㉡의 주동과 같을 뿐만 아니라, ㉠과 ㉡ 각각에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이 同一하고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과 자신의 힘(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도 同一하므로 주동과 능동의 설명에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의 주동과 능동의 정의가 완전히 같아지고 ㉡의 주동과 능동의 정의도 완전히 같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2015 개정에서는 어떠한지 주동과 능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	주동	능동
㉠지학사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
㉠미래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
㉡창비	주어의 지시 대상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	행동의 주체를 주어로 한 것 ¹⁰⁾

절을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고 한 것 등). 그러므로 교과서 검정제하에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은 집필진 내에서 자체 조정되어 제6차 문법 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되 제7차 문법 교과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제7차 문법 교과서는 절대적 기준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㉔천재교육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11)
㉔비상교육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

<표 3> 2015 개정에서 주동과 능동의 비교

2009 개정의 일부 교과서에서 주동과 능동의 설명이 相衡되었던 것과 달리 2015 개정에서 주동은 ‘직접’, 능동은 ‘제힘’이라는 다른 표현이 교과서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로써 주동과 능동을 意圖의으로 구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㉔도 ‘스스로’ 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것과 동일하고, 행동의 主體, 즉 행위주를 주어로 한 것이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5종의 교과서 모두 주동과 사동에서 동일한 설명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교과서의 내용 요소에서 주동과 능동을 區分해 놓은 이상, 위의 정의에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과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시문과 함께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주동과 능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둘을 다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동의 짝인 주동과 피동의 짝인 능동을 구분하기 위해 사동의 ‘시키다’와 相反되는 의미로 주동에는 ‘직접’을, 피동의 ‘다른 주체에 의해’와 相反되는 의미로 능동에는 ‘제힘으로’를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소 不合理한 설명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과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은 일부 표현만 조금 다르게 바꾼 것일 뿐, 실상 그 의미는 同一한 것으로 理解되기 때문이다. 다음 (2ㄱ~ㄴ)은 교과서에 제시된 주동문이다.

(2) ㄱ. 우진이가 옷을 입었다.

ㄴ. 철수가 책을 읽는다.

10) 최형용 외(2018)에서는 행동의 주체를 주어로 한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설명하므로 여기에 의거하여 <표 3>에서 ‘~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11) 민현식 외(2018)에서는 능동의 정의와 예문은 제시하지 않고 피동, 주동, 사동만 본문에 제시하였으며, 다른 교과서와 달리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각각 여섯 줄씩 할애하여 짧게 설명하였다.

- ㄷ. 아이가 밥을 먹는다.
- ㄹ. 아이들이 의자에 앉는다.

(2ㄱ~ㄹ)의 예문 차례대로 우진이가 옷을 입는 동작을 직접/스스로 한 것, 철수가 책을 읽는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 아이가 밥을 먹는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 아이들이 의자에 앉는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동시에 우진이가 옷을 입는 동작을 제힘으로 한 것, 철수가 책을 읽는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 아이가 밥을 먹는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 아이들이 의자에 앉는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ㄱ~ㄹ)은 對應되는 文章이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주동문으로도 능동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교과서의 정의로는 주동과 능동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主動’이라는 단어의 構成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主動’은 逐字的으로 ‘행위주의 동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위주의 동작은 ‘능동’과 같은 것으로 둘 다 행위주의 動作에 초점이 놓인다. 예컨대 “아이가 밥을 먹는다.”에서 ‘아이’라는 행위주가 ‘밥을 먹.’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주동은 능동과 같은 ‘active voice’이며, 위의 정의만으로는 결코 능동과 概念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대응되는 문장으로서 使動文이나 被動文이 함께 제시되어야 주동문 또는 능동문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2ㄷ)의 동사 ‘먹다’를 예로 들어 보겠다. ‘먹다(능동)↔먹히다(피동)’, ‘먹다(주동)↔먹이다(사동)’에서 능동과 주동은 ‘먹다’로 그 形式이 동일한, 같은 단어이다. ‘먹다’를 사용하여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아이가 밥을 먹는다.”처럼 능동과 주동이 같은 문장이 되고 만다. 반면에 ‘잡다’는 능동사이지만 ‘잡다’의 사동사¹²⁾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잡다’를 주동사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주동은 항상 사동을 前提해야만 존재하므로 주동이 능동, 피동, 사동에 비해 빈약한 개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사동의 상대적인 개념을 피동의 상대적인 개념인 능동과 重複되지 않도록 지칭하기 위해 학교 문법에서는 편의상 주동을 사용하였고 의도적으로 능동과 意味 差異를 두어 구분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12) 이때의 사동사는 어근 ‘잡-’에 파생 접사가 결합하는 사동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동과 능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ㄱ. 길이 넓다.

ㄴ. 담이 높다.

ㄷ. 얼음이 녹았다.

ㄹ. 동생이 울었다.

ㅁ. 철수가 책을 읽는다.

ㅂ. 아이가 밥을 먹는다.

(4) ㄱ. 영희가 물고기를 잡았다.

ㄴ. 우진이가 옷을 입었다.

ㄷ. 언니가 동생을 업었다.

ㄹ. 뱀이 개구리를 먹었다.

ㅁ. 선생님이 노래를 들었다.

ㅂ. 학생이 문을 닫았다.

(3ㄱ~ㅂ)은 주동문, (4ㄱ~ㅂ)은 능동문이다. 둘을 비교하면 (3ㄱ, ㄴ)은 형용사, (3ㄷ)은 非行爲性 자동사, (3ㄹ)은 行爲性 자동사, (3ㅁ, ㅂ)은 타동사가 사용되었고 (4ㄱ~ㅂ)은 모두 타동사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주동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가 모두 사용 가능한 것과 달리 능동은 타동사만 사용 가능하다. 능동문 (4ㄱ~ㅂ)이 표상하는 사건은 NP1 행위주에게서 NP2 피행위주에게로 동사에 해당하는 주어의 動作이 흘러 들어가는데, 행위주라 불리는 한 참여자는 사건을 誘發하고 피행위주라 불리는 다른 참여자는 그것에 직접적으로 影響을 받는 전형적인 他動 事件에 해당한다. 주동문 (3ㄱ~ㅂ)의 대응 자동문으로는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인부들이 담을 높였다”, “햇빛이 얼음을 녹였다.”, “형이 동생을 울렸다.”,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를 想定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동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의 동작이 나타나지 않는 형용사와 자동사도 주동사로 包括하고, 형용사문과 자동사문도 주동문의

로 包括한다.

그러므로 학교 문법에서 주동과 능동의 정의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능동사는 타동사이고 주동사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이므로 이러한 서술어의 유형과 더불어 이것으로 생성되는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의 문장 유형과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주동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동이 능동과 다른 점은 사동에 상대되는 여러 유형의 동사와 문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달리 표현하면, 피동에 대응되는 능동은 항상 他動詞, 他動詞文이라는 점에서 주동과 다르다. 그러나 이것이 문법적인 근거로서 주동과 능동을 구별할 만큼의 차이는 아니며, 더욱이 주동의 문법적 特性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다. 혹자는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와 달리 새로운 주어가 문장에 도입되고 주동사의 속성에 따라서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 모르나 이 역시 주동 자체에 內在하는 특성이 아니다.

2. 主動의 定義와 提示文

교과서에 있는 주동의 정의가 제시문인 주동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주동의 정의로 주동문을 穩妥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教科書에 있는 다음의 문장을 보도록 하자.

(5) ㄱ. 길이 넓다.

ㄴ. 담이 높다.

ㄷ. 지붕이 낮다.

ㄹ. 그릇이 비었다.

ㅁ. 얼음이 녹았다.¹³⁾

13) 이 문장은 얼음이 스스로 녹은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얼음이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녹을 수는 없으며, 얼음이 스스로 녹은 것이 성립하려면 의인화한 상황에서나 자연스러울 것이다. 얼음이 녹으려면 얼음이 (햇빛에 의해/햇빛에) 녹았다.”처럼 원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시간이 지남

앞에서 주동이 ‘주어가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거나 스스로 하려면 문장의 주어가 의지(의도)를 가질 수 있는 개체, 즉 有情物 行爲主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의거하여 예문을 보면 (5ㄱ~ㄴ)의 주어는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동작을 직접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없는 個體이다. 주어가 무정물인 데다가 (5ㄱ~ㄴ)의 서술어 ‘넓다’, ‘높다’, ‘낮다’는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形容詞이고 (5ㄷ, ㄴ)의 서술어 ‘비다’, ‘눅다’도 행위주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비행위성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5ㄷ, ㄴ)의 동사는 과거 시제 ‘-았/었-’이 결합해 있음에도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認識된다.

일부분 예를 들어 보이면 (5ㄱ)의 無情物 주어 ‘길’은 동작을 직접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넓-’은 동작이 아닌 狀態나 屬性의 의미이므로 문장이 주동의 정의와 배치된다. (5ㄷ)의 무정물 주어 ‘그릇’도 동작을 직접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바-’도 어떤 공간에 사물 따위가 들어 있지 않다는 의미여서 동작이 아닌 상태나 속성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문장이 주동의 정의와 배치된다. 결국 교과서에 있는 주동의 정의와 一致하는 문장은 (3ㄷ, ㄴ, ㄴ) “동생이 울었다.”, “철수가 책을 읽는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등과 같은 행위성 자동사로 만든 自動詞文과 타동사로 만든 他動詞文일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누군가 학교 문법은 이론 문법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實用 文法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논의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반례로 드는 行態가 적절한가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관된 정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예문의 整合性은 학습자가 정확한 문법 지식 체계를 갖추고 문법 구조와 운용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정의와 예문을 통해 개념을 문장에 적용하고 표현하는 使用 能力을 익힐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본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듯이 문법 교육에서 또한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알맞은 用例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간결성과 교육적 수월성 등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주동의 정의가 제시문으로 주어진 주동문조차 적절하게 설명하지

에 따라 나타나는 상태 변화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므로 “얼음이 (저절로) 녹았다.”도 가능하다.

못한다면 체제상, 논리상 결함이 있는 것이고 판단의 規準이 되어야 하는 교과서의 역할로도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方案을 제안한다. 첫째, 주동을 사용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타동사문에만 부합하도록 의미론적으로 정의한 내용을 수정하여 타동사문 외에도 형용사문과 자동사문을 포함하고, 주동사 안에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정의보다 外延이 좀 더 擴張될 필요가 있다. 문장의 서술어가 행위성 자동사와 타동사일 때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정의로도 충분히 설명되지만, 서술어가 비행위성 자동사와 형용사일 때는 해당 문장들을 주동 안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주동의 정의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내용이 追加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57~口)의 서술어 ‘넓다’, ‘높다’, ‘낮다’, ‘비다’, ‘눅다’로 만든 형용사문과 자동사문을 주동문으로 包含할 수 있다. 비록 주동과 사동에 대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의미상의 간결한 對應 論理를 잃게 되겠지만, 개념어의 정의 내용과 예문이 어긋나는 일과 이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유현경 외(2019: 552)에서 언급한 것처럼 使動 行爲에 의해 촉발되는 행위를 주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김광해 외(1999: 197)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결과를 결과 當事者의 行爲로 표현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에서 사람들을 길을 넓히는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길이 넓다’는 행위가 아니다. 즉, 사동 행위는 있으나 그로 인해 촉발되는 또 다른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길이 넓다’는 행위의 결과로 인한 개체의 狀態 變化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동을 사용하려면 사동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태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피사동 사건은 사동문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에서 철수가 책을 읽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동문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에서 길의 면적이 변화한 사건일 수도 있다. 앞의 것은 동

작이고 뒤의 것은 상태인데, 이 두 경우를 주동으로 捕捉하려면 주동의 외연이 擴張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현경 외(2019: 552)에서는 사동의 範圍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 사물을 포함한 특정 대상에 일정한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모두 사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촉발되는 作用은 모두 주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길을 넓히는 행위, 즉 길을 넓게 만드는 행위는 사동이고, 이로 인해 촉발되는 길의 전후 상태 변화는 주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동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동을 능동, 피동, 사동과 같은 獨立的인 個別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피동문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능동문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길이 넓다.”는 사동문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동문이라 명명할 수 없다. 사동 행위가 있어야만 그 결과에 해당하는 주동이 成立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에서 주동문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가 남는다. 사동으로 인해 촉발되는 작용을 ‘길을 넓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길이 넓-’인데, 이는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에서 表面에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다. 그럼에도 주동문은 “길이 넓다.”로밖에 상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두 제안에는 ‘主動’이라는 한자어로 인한 의미 문제가 介在된다. 주동은 능동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동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동의 경우 문장에서 형용사와 비행위성 자동사도 서술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타동사 서술어만 사용되는 능동과 사동에 비해 複雜性을 띤다. 현재 교과서에 있는 주동의 정의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와 같은 두 有情物 참여자가 있는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 “아이가 밥을 먹는다.”와 같은 타동사문을 지칭할 때만 적절하다. 능동과 달리 비행위성 자동사문, 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문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를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14) 유현경 외(2019: 552)에 따르면 “아저씨는 배고픈 걸인들에게 밥을 먹였다.”와 “박 장군은 성벽을 높였다.”에서 서술어에 나타나는 ‘이-’가 동일한 사동 접미사로 여겨진다. 이들이 동일한 형태소이고 뒤의 문장이 사동을 표현하는 사동문이 아니라면 앞의 문장도 사동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사동문으로 파악하려면 사동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중 일부만을 지칭하는 ‘主動’을 사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와 같은 두 유정물 참여자가 있는 사건을 典型的인 사동문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아이가 밥을 먹는다.”와 같은 타동사문을 전형적인 대응문으로 보아, 전형적인 용법을 指稱하는 용어로 주동을 사용한 것일 수 있다. 또는 일단 주동을 사용한 이상 그것의 의미가 表象하는 타동사문만을 주동의 정의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주동이 두 용법 중 하나만 지칭하므로 선택한 용어가 모든 용법을 포함하지는 못하는 것이다.¹⁵⁾ 물론 ‘主動’이라는 번역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 역시 ‘active voice’를 번역한 것으로 사동에 대응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考案되었기 때문이다.¹⁶⁾ 주동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주동을 정의할 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동을 정의할 때 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피사동주가 동작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피사동주가 조건이나 상태 변화를 겪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擴張이 필요하다.

셋째, 주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능동을 사용할 수 있다. 능동을 빌려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을 모두 能動文으로 命名하는 것이다. 이를 사용하면 능동↔피동, 주동↔사동으로 용어의 중복 없이 사용되던 대응 체계가 능동↔피동, 능동↔사동과 같이 하나의 용어가 두 자리에 사용된다는 弱點이 있지만, 범언어적으로 한국어의 주동이 능동에 해당하므로 概念的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동에 대응되는 표현으로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주동이 아닌 능동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동문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길이 넓다.”를 능동문이라 명명할 수 있고, 여기에 사건을 일으키는 새로운 행위주인 使動主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로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것

15) 방향, 경로, 결과, 재료, 수단, 도구, 원인, 자격 등 복수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 ‘-(으)로’를 여러 용법 중 하나인 도구라는 이름을 붙여 이른바 도구격 조사로 명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

16) ‘causation’을 원인 또는 사역으로 ‘causer’을 원인주 또는 사역주로 번역할 수는 있으나 능동, 피동과 비교하면 이질성을 띤다. 그리고 ‘態’ 또는 ‘動態’를 붙인 능동태, 피동태와 비교하더라도 원인태, 사역태는 이질성을 띤다.

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¹⁷⁾

넷째, 사동에 대응되는 사동성 없는 동사를 非使動 動詞(non-causative verb)로, 형용사를 非使動 形容詞(non-causative adjective)로 명명하는 방법이 있다. 사동사는 사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가 결합한 파생 동사이거나 비사동 동사와 비사동 형용사는 파동 접사가 결합하기 전, 즉 파생 전의 동사 및 형용사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사동 접사가 결합하기 전의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이며, 사동사는 사동 접사가 결합한 후의 타동사를 지칭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주동사는 비사동 동사나 비사동 형용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어로 만들어진 문장을 非使動文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명칭이 야기하는 문제는 비사동문, 비사동 표현 등과 같은 生硬한 개념을 학교 문법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있는 ‘능동’, ‘피동’, ‘사동’과 달리 ‘비사동’은 사동 외의 나머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여겨져 지시 대상이 具體的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네 가지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학교 문법의 특성상 수정된 주동의 개념을 사용하거나 능동을 사용하는 것이 教育의 수월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된다.

3. 使動의 定義와 提示文

이어서 사동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동도 앞서 살펴본 주동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사동의 정의가 提示文인 사동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 있는 다음의 문장을 보도록 하자.

- (6) ㄱ.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ㄴ. 인부들이 담을 높였다.

17) 물론 이것을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형용사문 “길이 넓다.”가 ‘能’, ‘能動’의 의미와 직관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명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초점을 ‘형태’ 중심에 놓든지 아니면 ‘표현 주체’의 의도에 놓든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심사자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기술의 초점을 의미에 놓고 형태와 표현 효과도 다룬다. 기술의 초점을 표현 주체의 의도에 놓고서 능동문은 행위주에 초점이 놓이고 피동문은 피행위주에 초점이 놓이며 사동문은 사동주에 초점이 놓인다는 식으로 기술하더라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형태와 의미를 중요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 ㄷ. 햇빛이 얼음을 녹였다.
- ㄹ. 형이 동생을 울렸다.
- ㅁ.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 ㅂ.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 ㅅ.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 ㅇ. 출발 시각을 9시에서 10시로 늦췄다.

<표 1>에서 사동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주어는 意志를 가질 수 있는 유정물 행위주여야 할 것이고 ‘남’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므로 유정물 행위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사동에 있는 두 명의 사건 참여자 중에서 한 참여자(A)는 시키는 자이고 다른 한 참여자(B)는 A가 시킨 내용을 동작으로 履行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동 사건인 原因 사건이 피사동 사건인 結果 사건을 일으키는데, 사동 사건과 관련 있는 참여자A를 使動主로, 피사동 사건과 관련 있는 참여자B를 被使動主로 명명할 수 있다. 이처럼 사동문은 원인 사건(사동 사건)과 결과 사건(피사동 사건)이라는 두 사건으로 구성된 複合 狀況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Comrie 1989; Song 2001)이므로 두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나타나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을 일으키거나 뒤의 사건이 결과로 발생하여 시간적 先後 관계 또는 논리적 선후 관계와 같은 密接性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문을 보면 (6ㄱ~ㄷ)은 사동의 정의에서 ‘남’에 해당하는 대상이 모두 무정물 ‘길’, ‘담’, ‘얼음’이므로 주어가 시킨 ‘길을 넓히’, ‘담을 높이’, ‘얼음을 녹이’와 같은 내용을 동작으로 이행할 수 없다. (6ㄹ~ㅂ)은 문장 안에 ‘형, 동생’, ‘선생님, 철수’, ‘아빠, 아이’처럼 유정물인 사동주와 피사동주 두 참여자가 나타나며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사동의 정의가 充足된다. (6ㅅ, ㅇ)은 이삼형 외(2018)에서 派生的 使動文의 예로 제시한 문장이다. 먼저 (6ㅅ)은 두 참여자 ‘폭염’과 ‘아스팔트’가 모두 무정물이므로 사동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달궜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타동사이며 사동사가 아니

지만, 해당 교과서에서는 ‘뜨거워지다’의 ‘달다’와 ‘뜨겁게 하다’의 ‘달구다’를 의미상 주동과 사동의 관계로 把握하여 실은 것으로 보인다. 문법적으로 ‘달구다’는 사동사가 아니며, 유사한 예로 ‘숫다’와 ‘숫구다’가 있다. (60)은 省略된 유정물 주어를 복원할 수 있으나 ‘남’에 해당하는 개체가 유정물이 아니므로 주어가 시킨 동작을 이행하지 못한다. 즉, (60)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일 수 없고 주어가 직접/스스로/제힘으로 동작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동을 정의할 때 최형용 외(2018)에서 ‘주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풀이한 데에는 사건 참여자의 有情性을 고려하여 기존 정의에서 ‘남’에 해당하는 개체가 無情物이더라도 사동문에 포함하기 위해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그럼에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다시 유정물이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61~63)을 살펴본바 교과서에 있는 사동의 정의로는 두 참여자 중 하나 이상이 무정물인 경우에 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시킨 동작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使動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의는 교과서에서 사동의 정의와 함께 제시되는 사동문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동을 매우 狹小한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¹⁸⁾ 문숙영(2016: 405)에서는 언어학적인 정의가 학교 문법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에 의미에 立脚한 정의를 고수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것’을 ‘남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용사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사동주가 무정물인 것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남’과 같이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유정물과 무정물을 包括할 수 있는 보다 中立的인 ‘대상’이나 ‘개체’ 등과 같은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단,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동문 “인부들이 담을 높였다.”를 설명하지 못한다.

18) 행위주가 길을 넓히는 사건의 사동주(causer)인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행위주가 담을 높이는 사건의 사동주(causer)인 “인부들이 담을 높인다.” 등과 같은 문장을 사동문으로 명명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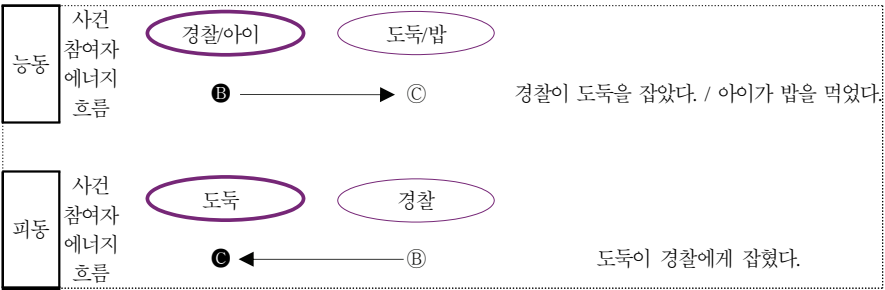
범언어적으로 사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인부들이 담을 높였다.”, “햇빛이 얼음을 녹였다.” 등을 단순히 타동사문이 아니라 사동문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과 같은 협소한 사동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67~ㄷ)은 사동주/사동 행위, 피사동주/피사동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동문이라 할 수 없고 그저 타동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장은 사동주라는 새로운 주어가 문장에 서술된 내용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본래 주어 자리에 있던 個體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므로 사건이 새롭게 再編된다. 이러한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을 포함하여 사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자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타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을 아우르기 위해 사동은 참여자A(使動主)의 동작으로 인해 참여자B(被使動主)의 동작이 나타나는 것과 참여자A(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참여자B(피사동주)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즉,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길’, ‘담’, ‘얼음’과 같은 개체(피사동주)가 조건이나 상태 변화를 겪는 것도 사동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유정성은 相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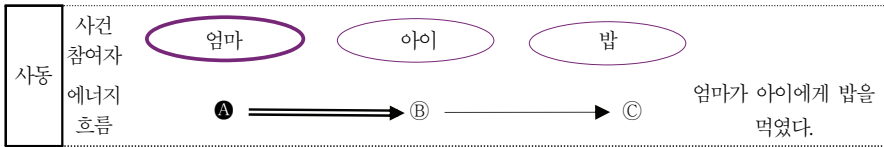
사동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동문 (67)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의 문장 의미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能動文으로도 해석되고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主動文으로도 해석된다는 사실이다. 즉, 문장에서 복수의 주어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또는 직접 ‘길을 넓히’는 동작을 한 것을 나타내며, 의미상으로는 능동문도 되고 주동문도 되고 사동문도 된다. 이를 사동문으로만 보는 것은 使動 標識 ‘-히-’가 어근에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동의 의미 외에 형태론적 표지와 같은 形式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아기의 눈물을 그쳤다.”, “주호가 자동차를 멈추었다.” 등은 “...눈물을 그치게 했다.”, “...자동차를 멈추게 했다.”로 代置되므로 사동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으나 사동을 실현하는 형식, 즉 사동 표지가 없으므로 사동 및 사동문으로 보지 않는다.

4. 主動, 使動, 能動的 對應 關係

지금까지 학교 문법에서 주동과 사동에 얽혀 있는 爭點들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동, 사동, 능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교 문법의 체계 안에서 주동, 사동, 능동이 맺고 있는 關係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그동안 對立的인 문장 전환의 측면에서만 기술한 이들의 關係를 동작의 轉移에 따른 連鎖的인 關係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는 능동문과 피동문, 주동문과 사동문을 배치한 뒤 두 문장 간의 機械的인 轉換으로 기술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記述할 수도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인 사동은 원인과 결과의 두 상황, 새로운 주어 도입, 이전 주어 강등, 동사가 사동의 형태론을 갖는 特性이 있다(Comrie 1989). 이러한 사동은 기본태의 서술 관점을 서술 동작을 있게 한 원인 쪽으로 전환하는 태 戰略이다(강명순 2007: 72). 따라서 사동은 사건을 유발하는 사동주가 문장에 새로 도입되어 가장 顯著한 참여자가 된다. Langacker (1991: 755)를 참고하여 에너지의 흐름을 일직선상에서 간략하게 연쇄 모형으로 나타내 보이면 능동은 $B \rightarrow C$ 로, 피동은 $C \leftarrow B$ 로, 사동은 $A \Rightarrow B \rightarrow C$ 로 표시할 수 있다.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에서 각각 B, C, A는 문장의 주어로서 焦點을 받는 성분이고, 화살표 ‘ \rightarrow , ‘ \leftarrow , ‘ \Rightarrow ’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方向, 즉 동작의 方向을 나타낸다. 화살표 중 ‘ \Rightarrow ’는 사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능동문은 행위주에 초점이 놓이고 피동문은 피행위주에 초점이 놓이며 사동문은 사동주에 초점이 놓인다(김영일 2019: 31). 이러한 關係를 표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능동, 피동, 사동의 관계

<표 4>에 基礎하여 학교 문법에서 주동을 사용하지 않고 능동을 사용한다면 사동에 대응되는 능동을 ‘**B**(→**C**)’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는 한 참여자에게서 다른 참여자에게로 主語의 動作이 흘러 들어가는 타동사뿐만이 아니라 동작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형용사, 비행위성 자동사가 모두 포함되므로 ‘(→**C**)’를 選擇的으로 표시한다. 학교 문법에서 주동을 사용한다면 두 가지 側面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사동에 대응되는 능동과 동일하게 ‘**B**(→**C**)’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동주 **A**가 導入되기 전을 나타낸다. 둘째로, 주동은 사동과의 대응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므로 사동 ‘**A**⇒**B**→**C**’에서 ‘**B**→**C**’를 떼어 주동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즉, 사동의 결과로 주동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때 “길이 넓다.”와 같은 형용사문을 고려하여 ‘**B**(→**C**)’로 나타내며 사동은 ‘**A**⇒**B**(→**C**)’가 된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重複을 막기 위해 능동을 사용하지 않는 동시에 일반언어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주동 대신에 非使動을 사용할 수 있다. 비사동은 사동과의 관계 속에서 사동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지칭하므로 마찬가지로 ‘**B**(→**C**)’로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동의 대응문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은 사건과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사건은 도둑이 잡힌 결과에서 同一하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밥을 먹은 사건과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 사건도 아이가 밥을 먹었다는 결과에서 동일하다. “길이 넓다.”와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도 길이 넓은 결과에서는 동일하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나 상황이라도 화자가 어떤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이나 상황을 觀察하고 認識하였느냐에 따라서 행위주에 화자의 관점을 이입하면 능동문, 피행위주에 화자의 관점을 이입하면 피동문, 사동주에 화자의 관점을 이입하면 사동문이 선택된다. 문장의 선택은 사건과 사건 참여자에 대한

話者의 인식과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의 선택은 화자의 관점을 반영하며, 화자의 관심과 초점이 놓이는 知覺의 중심 대상이 바뀌게 된다. 이때 화자가 자신의 시각을 移入하는 개체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놓인다는 共通點을 띤다(김영일 2019: 51-52).

IV. 結論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언어와 매체』에서 文法 要素로 다루어지는 주동과 사동의 기술 내용을 檢討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解決 方案을 모색하였다. 본문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에서 주동은 ‘직접’, 능동은 ‘제함’이라는 다른 표현이 교과서마다 동일하게 나타나 주동과 능동을 意圖의으로 區分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동의 짝인 주동과 피동의 짝인 능동을 구분하기 위해 사동의 ‘시키다’와 相反되는 의미로 주동에는 ‘직접’을, 피동의 ‘다른 주체에 의해’와 相反되는 의미로 능동에는 ‘제함으로’를 사용한 결과이다. 즉, 사동의 相對 개념과 피동의 상대 개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문법에서는 능동과 다른 主動를 사용하였고 능동과 의미 差異를 두어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동은 교과서의 정의만으로는 능동과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문장이 능동문도 되고 주동문도 되고 심지어 사동문도 된다. 따라서 대응되는 문장으로서 사동문이나 피동문이 함께 제시되어야 주동문 또는 능동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사동의 의미 외에 형태론적 표지와 같은 형식도 중요하게 考慮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정의 내용이 제시문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주동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문장의 敘述語가 행위성 자동사와 타동사일 때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정의로도 충분히 설명되지만, 서술어가 비행위성 자동사와 형용사일 때는 해당 문장들을 主動 안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동문이 타동사문 외에도 형용사문과 자동사문을 포함하고, 주동사 안에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주어가 동작

을 직접 하는 것 외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내용이 주동의 定義에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사동에 의해 촉발되는 작용을 주동이라고 설명하려면 사동주의 동작에 의해 촉발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사동주의 狀態 變化까지 주동에 포함해야 한다. 피사동 사건은 사동문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에서 철수가 책을 읽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동문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에서 길의 面積이 변화한 사건일 수도 있다. 앞의 것은 使動 事件으로 인해 피사동주의 동작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뒤의 것은 사동 사건으로 인해 피사동주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모두 주동으로 捕捉하려면 주동을 정의할 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동을 정의할 때 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피사동주가 동작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피사동주가 條件이나 상태 변화를 겪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擴張이 필요하다.

넷째, 주동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존의 能動을 사용할 수 있다. 능동의 용어를 빌려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을 모두 능동문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이를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에너지의 흐름에 따른 <표 4>의 연쇄 모형을 제시하였다. 既存의 주동을 능동이라 칭하더라도 범언어적으로 한국어의 주동이 능동에 해당하므로 개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동에 대응되는 표현으로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주동이 아닌 능동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동문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길이 넓다.”를 能動文이라 명명할 수 있고, 여기에 사건을 일으키는 새로운 행위주, 즉 사동주가 導入되면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로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다섯째, 사동에 대응되는 사동성 없는 동사는 비사동 동사(non-causative verb)로, 형용사는 비사동 형용사(non-causative adjective)로 명명할 수 있다. 使動詞는 사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가 결합한 파생 동사이나 비사동 동사와 비사동 형용사는 사동 접사가 결합하기 전, 즉 파생 전의 동사 및 형용사를 指稱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사동 접사가 결합하기 전의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이며, 사동사는 사동 접사가 결합한 후의 타동사를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동사는 非使動 동사, 비사동 형용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어로 만들어진 문장을 비사동문이라 할 수 있다. 주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네 가지 선택지 중 학교 문법의 특성상 수정된 주동의 개념을 사용하거나 능동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다.

여섯째, 교과서에 있는 사동의 정의로는 두 사건 참여자 중 하나 이상이 무정물인 경우에 시키는 동작이 不可能하거나 시킨 동작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사동이 成立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의는 교과서에서 사동의 정의와 함께 제시되는 사동문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동을 매우 狹小한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동문에서는 사건을 일으키는 새로운 행위주인 사동주가 사건에 참여하여 서술된 내용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再編된다. 사동문은 그러한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을 포함하는 複合事件이다. 형용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자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 타동사문에서 사동문이 되는 것을 아우르기 위해 사동은 참여자A(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참여자B(피사동주)의 動作이 나타나는 것과 참여자A(사동주)의 동작으로 인해 참여자B(피사동주)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參考文獻>

1. 論著

- 강명순(2007), 『국어의 태 연구』, 한국학술정보.
- 고영근·구본관(2008/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공윤희(2012), 「상황학습을 통한 문법교육 연구: ‘사동·피동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 김소라(2009), 「피동 사동 표현의 학습 내용 선정과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일(2019), 『한국어 피동사 피동문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점숙(2010), 『중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 사동·피동 표현 단원의 비교와 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원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어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숙영(2016), 『학교 문법에서의 ‘문법 요소’ 기술 내용 연구』, <언어와 정보사회> 2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375~412.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송택경(2012), 『학교 문법의 사동 표현 교육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 외(2019),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관규(2002/2016),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지룡 외(2005/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최호철(2010), 『피동·사동과 관련한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대하여』,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pp.333~352.
- Bybee, J.(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이성하·구현정 역(2000), 『형태론』, 한국문화사.)
-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Blackwell.
- Langacker, R.(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Mouton de Gruyter.
- Song, J. J.(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Longman.

2. 教科書

- 민현식 외(2018),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박영목 외(2012), 『국어 5』, 천재교육.

- 방민호 외(2012), 『국어 5』, 지학사.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미래엔.
윤여탁 외(2012), 『국어 5』, 미래엔.
이관규 외(2012), 『국어 5』, 비상교육.
이관규 외(2018),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이도영 외(2012), 『국어 5』, 창비.
이삼형 외(2018), 『언어와 매체』, 지학사.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 창비.

■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Description of Judong and Sadong in School Grammar

Kim, Young-il

The study examined the contents regarding the description of Judong and Sadong in the Korean language as the grammatical elements in the subject 『Language and Media』 in the revised 2015 curricula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n discovered the need for correction, for the definitions of Judong and Sadong do not fully account for the given texts. The study calls for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Judong to include the description of the status of the subject, and that of Sadong to include the causee going through changes in conditions or status due to the action(s) of the causer. Instead of using Judong, one can use the existing active voice as the corresponding expression of Sadong, to bind together the subject making the action on its own and the status of the subject. Doing so would enable us to designate adjective sentences and inactive intransitive verb sentences as active sentences, and to indicate the sentences being expanded into causative sentences in the event of the introduction of a causer, a new subject with an action. In addition, the concept of Non-Causative can be introduced. However, the stud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revised Judong or Neungdong in school grammar instead, to make it easier to for the educators and students to teach and learn.

※ key-words: Active Voice, Causative Voce, Active Sentence, Causative Sentence, Active Verb, Causative Verb, Causer, Non-Causative, School Grammar